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48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대구·경북 여행 도민 1명·체류객 1명, 모두 ‘음성’ 판정
- 제주도, 해외여행 입도객 특별관리 절차 준비 돌입
- 제주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키기에 총력
- 제주도, 기독교 대표들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당부

2020. 3. 2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20.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20.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2명, 격리 중 2명)

구분 (단위: 명)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 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1,902	4	2	2	0	1,898	30	1,868	59
일일 증감	+45	0	0	0	0	+45	-5	+50	0
전국	316,664	8,652	2,233	6,325	94	308,012	15,525	292,487	

□ 입도객 현황 [20.3.19.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6,447명 (작년 같은 날 대비 △52.0%, 전일 대비 +1.6%)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6,447	16,406	41	3	3	35
	2019년	34,282	30,350	3,932	2,332	268	1,332
	증감률	△52.0%	△45.9%	△99.0%	△99.9%	△98.9%	△97.4%
누계 (2.23.~)	2020년	416,257	410,210	6,047	469	593	4,985
	2019년	925,697	823,659	102,038	58,029	6,034	37,973
	증감률	△55.0%	△50.2%	△94.1%	△99.2%	△90.2%	△86.9%

○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현황

- 대구-제주 항공노선(2편): (도착) 352명 (출발) 368명
- 대구·경북지역 출신학생 입도: 0명 (2.6. 이후 누계 : 185명)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19. 기준]

구분 (단위: 명)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C이하)	문진상담(37.5°C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26	23	3	1	2
누계(2.3.~)	1,779	1,659	120	92	28*

* 이송대상자 28명 중 17명 단순발열로 귀가, 11명 검사(음성11, 검사 중0)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9. 기준]

구분(단위: 명)	총계	제주도민	타 지역 주민(제주 체류)
일계	2	1	1
누계(3.7.~)	54	50	4

□ 자금지원동향[20.3.18. 기준]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관광진흥기금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접수	15건/70명	427건/ 4,848명	271건	8,713건	230건	7,060건	8건	943건
처리	*이행 중	*1개월 단위 확인 후 지급	83건/ 431억원	4,076건/ 1,581억원	61건/ 18.7억원	1,685건/ 482.7억원	-	678건/ 908.8억원

  제주특별자치도 <small>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mall>		2020. 3. 20.(금)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도자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후속자료: 있음

대구·경북 여행 도민 1명·체류객 1명, 모두 '음성' 판정

- 20일 10시 기준 대구·경북지역 방문이력 도민 50명·체류객 4명 등 총 54명 검사 진행 -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1명과 제주 체류객 1명에 대해 추가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19일 도민 1명과 체류객 1명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뤄지면 서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3월 5일) 이후 검사 인원은 20일 오전 10시 기준 총 54명(제주도민 50, 대구·경북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체류객 4)이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19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추가 입도는 없었다. 각 대학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85명이다.
 - 이 중 116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69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 19일 대학생 2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으나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

- 두 학생 모두 대구 출신으로 12일과 15일 각각 입도 후 대학 측에서 마련한 격리 기숙사와 임시 생활숙소에서 자율적 격리를 시행 중이었다.
- 학생들은 음성 판정 이후에도 다시 임시 숙소에서 머무는 상태이며, 해당 기숙사는 소독을 모두 완료했다.

○ 또한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경 대학 측의 요청으로 대구에서 제주로 입도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 대해서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역시 음성으로 확인 됐다.

- 해당 학생은 발열 증상은 없었으나 대구 체류 이력으로 제주공항 입도 후 구급대 차량을 이용해 서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실시했다.
- 현재 대학 측이 마련한 임시 생활숙소에서 14일간 자율적 격리를 시행 중이다.

□ 한편, 19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52명, 출발 탑승객은 368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에서 19일 오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064) 710-8820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19. 기준, 잠정치]**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제주 출발	303	358	351	323	354	367	367	372	368
제주 도착	369	368	338	337	291	360	372	370	352

※ 출 · 도착 2회 발열체크, 도착 시 이동경로 구분, 이동경로 1일 2회 방역

□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9. 기준]**

	누계 (3/7~)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계	54	0	5	1	1	1	2	1	2
도민	50	0	5	1	1	1	1	1	1
제주 체류객	4	0	0	0	0	0	1	0	1

□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19. 기준, 잠정치]**

계	자율격리 해제 (2/6~3/5)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3/4~3/19)					
			3/6-3/14	3/15	3/16	3/17	3/18	3/19
185	116	69*	55	7	3	2	2	0

* 대학별 학생관리: 69명(제주대(격리기숙사38, 자가 등 23), 한라대(대학 자체 숙소 6, 자가 2))

□ **공 · 항만 발열감지 현황 ['20.3.19. 기준]**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열감지자	15	27	42	33	38	28	42	32	26*
누계(2/3~)	1,511	1,538	1,580	1,613	1,651	1,679	1,721	1,753	1,779

* 대구발 비행기 탑승객 중 2명 발열감지 후 체온 측정 시 발열 증상 없어 귀가조치

제주도, 해외여행 입도객 특별관리 절차 준비 돌입

- 입도 중국인 유학생 및 대구·경북 방문자 보호기준 적용 선제적 대응 -
- 해외여행이력 입도자 정보 신속 공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 예정 -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아 입도하는 내·외국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입도 절차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특별지원 준비에 돌입했다.
 -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원희룡 지사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해외여행객들이 국내선을 통해 제주에 오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지역 방문자에 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제주도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아 입도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인 유학생 및 대구·경북지역 방문자와 동일하게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밟아 입도하는 내·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에서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입도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별도의 입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2주간 하루 2차례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1대1 능동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 이와 함께 ▲기내 특별입도절차 안내 방송(영문·중문 포함) ▲도착장 안내데스크 마련 ▲건강기초조사서 작성표 기입 ▲코로나19 검사 안내문 배부 등 입도 관문에서부터 선제적 관리에 돌입하겠다는 전략이다.
-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본부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입도절차 시행을 위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했다.
- 오늘(20일)은 도내 6개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북미, 유럽 등 해외국가 방문 이력자에 대한 검사 확대 방안 등을 상세히 논의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확대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과 1대1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입국자들은 국내에서 머무르는 곳의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증상을 공유해야 한다.
 - 이틀 이상 ‘의심 증상이 있다’고 보고할 경우 보건소가 의심 환자 여부를 판단해 진단검사를 안내하게 된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공정지원단 공항공정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제주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키기에 총력

- 사전예약제 도입·전담인력 충원... 18일까지 5378건, 1938억 원 실행 -
- 특례보증, 조기소진 우려 감안해 당초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특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을 단축하고,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제주도는 지난달 6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특별경영안정자금 용자와 특례 보증의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해 왔다.
 - 우선 특별경영안정자금 용자와 특례보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전담인력을 증원했다.
 - ▶ (경제통상진흥원) 용자추천서 발급 4명 → 17명(13명 증)
 - ▶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서 발급 15명 → 30명(15명 증)
 - 또한 신청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는 등 노력해왔다.
 - 특히 금융기관의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창구 상담에 투입하고, 보증신속심사팀 3개반 25명(상담반, 보증심사반, 보증서 발급반)도 신설했다.

< 경영안정 지원 접수 및 실행 현황(3.18기준) > (단위 : 건, 억원)

구 분	지원 규모	접 수		실 행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특별경영안정자금 용 자 추 천	2,000	3,873	1,507	3,873	1,507	온라인 사전예약 대기 건수 : 4,229건
코로나19 특례보증	1,000	1,674	477	1,505	431	온라인 사전예약 대기 건수 : 4,360건

□ 제주도는 정부 특례보증의 조기소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그 규모를 당초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3배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제주도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하여 4월부터 상환 만기가 도래되는 업체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 4월 1일 기준 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 도래 업체 2,905개(1,515억원)

□ 한편 제주도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각자에게 맞는 지원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 안내 코너를 도청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 지원정보는 제주도청 코로나19상황실 → 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으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사이트: <http://www.jeju.go.kr/industry/businesssupport/biz.htm>

□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최우선 원칙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며 “정책현장에서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한 “정부의 추경 및 민생대책을 예의 주시하고 제주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통상국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 064) 710-2520

제주도 기독교 대표들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당부'

- 기독교교단협의회 등 주요교단 대표 및 지역별 연합회장 찾아 협조 요청 -
- 도기독교교단협의회, 3월 23일 예정인 조찬 기도회 무기한 연기 방침 밝혀 -
- 불교연합회,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5월로 연기... 천주교, 22일까지 미사 중지 -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부터 오늘(20일)까지 양일간 기독교 주요 교단과 지역별 연합회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집 집회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이는 수도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태 종식 시까지 가급적 종교집회·밀집 행사 중단 자제 또는 연기, 영상예배로의 전환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다.
- 앞서 원희룡 지사도 18일 코로나19 46차 합동브리핑을 통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해주시는 종교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여러 종교계에서 당분간 현장 집회를 중지해주시고 공공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박명일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장(제주국제순복음교회)은 “교인 100인 이상 도내 중대형 교회들은 대표자 한명을 불러 예배를 받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영상

으로 대체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4월 12일 예정된 지역별 부활절 연합 예배 진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 또한 134개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박영철 목사(고산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소독기를 구입해 교회 내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며 “감기와 호흡기 질환자 및 노약자의 예배 참여 자제와 예방수칙 준수, 신도 외 출입제한, 예배 시 식사제공 중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 중” 이라고 전했다.
- 정민철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장(모슬포 순복음교회)은 “대부분의 기독교 회의와 모임은 거의 중단된 상태” 라고 말했다.
- 다른 교단 대표들도 “교회별로 3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영상 예배로 진행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며 “교인들 요청에 의해 현장 예배 진행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와 방역실시, 신도간 이격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예배를 보고 있다” 고 밝혔다.

□ 한편, 천주교 제주교구(28곳)는 22일까지 미사를 비롯한 회합이나 행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 제주교구 측은 당초 지난 17일부터 미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미사를 포함한 교구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제주불교연합회는 올해 3월 말부터 개최 예정인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4월말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은 제주시 지역은 4월 25일, 서귀포시 지역은 4월 26일로 변경되며, 봉축대법회 및 연등축제도 제주시 지역은 5월 16일, 서귀포시 지역은 5월 17일에 개최된다. 사찰별 봉축법요식은 5월 30일에 개최된다.
- 또한, 불교계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한달 기도를 4월 30일부터 들어간다.

※ 관련 문의 : 문화체육대의협력국 문화정책과 강기종 종교팀장 064) 710-3206

[현장 방문 사진]



-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방법
 8.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9.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 2  손등
- 3  손가락 사이
- 4  두 손 모아
- 5  엄지 손가락
- 6  손톱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 2  옷 소매로
가리기
-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

참고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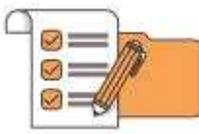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홈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여야 하며, 격리장소(격리시설)에 입소하여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남을 때 방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최소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임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서지,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피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2020.3.6. 1/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감염병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불안과 공포가 커져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해요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2020.3.6. 2/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와 심리자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등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는 우선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고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2020.3.6. 3/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1**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 2**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힘든 감정 털어놓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 4**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2020.3.6. 4/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5**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어린이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6**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 7**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감염병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2020.3.6. 5/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기상담전화

<p>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영남권트라우마센터)</p>	<p>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p>
---	---

누리집

국가트라우마센터 | <https://nct.go.kr>
질병관리본부 | <http://www.cdc.go.kr>

2020.3.6. 6/6

2020.3.7.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만약,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055-520-2777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발행일 : 2020.2.27.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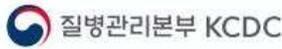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상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사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사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사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